

윤산온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문제

안 증 철*

1. 머리말
2. 윤산온 선교사의 생애와 초기 활동
3. 3·1운동 전후와 2차 내한 후의 활동
4. 1930년대 신사참배문제와 귀국 후의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식민지 시기 평안도 지역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윤산온(尹山濶¹⁾, George S. McCune-이하 GSM)의 활동에 대해 다룬다. 윤산온의 활동은 그 자체로 식민지 시기 평안도 지역 선교사와 기독교의 특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적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던 선교사의 독특한 경험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큰 아들 맥쿤(George M. McCune-이하 GMM)²⁾과 둘째 아들인 맥쿤(Shannon McCune-이하 SM)³⁾이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윤산온이라는 한국이름의 연유는 그의 성(姓) 맥쿤 혹은 맥윤(McCune)이란 영어발음에서 윤(尹)자를 성으로, 그의 중간이름 샤논(Shannon)이란 영어발음에서 산온(山濶)을 이름으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이동진, “한국교회와 송실의 은인 尹山濶,” 《인물로 본 송실 100년》 1집, 송실대학교, 1992, p. 475.

2) 형 맥쿤(GMM, 1908~1948)은 평북 선천에서 태어났다. 태평양전쟁기, 미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국(OSS)과 국무성(the Department of State) 등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고 종전 후 버클리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48년 40세에 일찍 병사했다. 그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Jong-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7.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December) 참조.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보수집과 정책보고서 작성을 담당했음을 생각할 때 선교사를 매개로 한 한미관계사를 이해하는 것에도 관련 있다.

윤산온은 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반대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기독교사와 독립운동사에 언급되고 있는⁴⁾ 친숙한 인물이다. 1936년 초 신사참배문제로 미국으로 추방되기 전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당시에도 잘 알려진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대한민국 건국 후 독립유공자 건국공로훈장을 추서(追叙)받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초 정보는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고⁵⁾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찾을 수 없다.⁶⁾ 또한 그의 자녀들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전후에 미국정부의 한국 전문가들로 활동한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한다. 이 논문은 윤산온의 활동을 한국에 입국한 후

3) 동생 맥쿤(SM, 1913~1995)은 형처럼 한국에서 태어났고 1939년 지리학으로 유명한 클라크대학(Clark University, Massachusett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태평양전쟁기에 정보장교로 근무했다. 종전 후 여러 학교에서 지리학 교수로 일하면서 아시아 특히 한국관련 논문을 많이 작성했다. 또한 중요한 공직에도 근무했는데 일본 오키나와섬의 민간인 장관과 경제관련 부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의 지역책임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와 그의 저작에 대해서는 그의 책, *Views of the Geography of Korea 1935~1960* (Seoul : the Korea Research Center, 1980)의 부록 C와 Norton Ginsburg, "Obituary: Shannon McCune 1913~1993,"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4, No. 3 (Sep., 1994) 참조.

4) 대표적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pp. 308~312의 105인 사건 관련 서술 부분과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0, pp. 290~296의 신사참배 부분 서술, 105인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5) 맥쿤(GMM)을 동생 맥쿤(SM)으로 이해하면서 그가 아버지 윤산온의 동생으로 표현하는 오류도 있다.(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권, 역사비평사, 1995, p. 76, 99) 그러나 구대열의 논문은 맥쿤의 한국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잘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한 맥쿤의 긍정적인 평가를 잘 소개하고 있다.

6)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대백과사전》 5권, 기독교문사, 1980, pp. 1057~1058 ; 신성학교동창회, 《神聖學校史》, 고려서적, 1980, p. 60. 맥쿤(GMM)을 동생 맥쿤(SM)으로 이해하면서 아버지 윤산온의 동생으로 표현된 오류도 있다.

를 기준으로 시간대 별로 다루며 그의 글과 여러 문서에 나타난 그의 사상과 활동을 살피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그의 생각과 활동을 재구성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출간한 월간지적인 *The Korea Mission Field*)⁷⁾를 많이 활용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문제의 중심인물이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윤산온의 내적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과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한국인 대 일본인만이 아니라 선교사들 사이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 복잡한 대립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선교사들 입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있었던 미국영사관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왜 윤산온이 단숨에 추방될 수 있었는가는 미국영사관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신사참배는 신사에 봉안된 천황의 선조와 명치천황을 예배하는 문제로서 결국 일본의 천황제를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전후 일본 천황제에 대한 미국정책의 한 단면을 이해하게 한다.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무성 극동국과 서울 영사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과 평양지역 선교사들과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이 최근 한국학계에 소개되었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⁹⁾

7) 이 잡지는 매달 한번씩 서울에서 발행되는 월간지로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5번가 156번지)로도 보내진 것으로 보아 선교지의 일을 선교후원자들과 선교본부에 알리는 성격도 있었다.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

8) 뒤에서 보겠지만 당시 미국무성 극동국의 메모는 서울 영사관의 입장, 즉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9) 이 자료집은 두 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 - 미국 극동국 국무성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이하 《신사자료 I》로 표기)와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이하 《신사자료 II》로 표기)이다.

2. 윤산은(GSM) 선교사의 생애와 초기 활동¹⁰⁾

윤산은(1872. 12. 15~1941. 12. 7)은 187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태생으로 초등학교에서 2년간(1890~1892), 파크중학교(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1893년부터 1897년까지 교편을 잡았고 파크대학교와 미주리대학(석사)을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1905년 5월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석사학위 전에 파크대학(Park College)에서 교수진으로 근무했다.¹¹⁾ 그는 자녀들을 넷 두었는데 첫째가 Anna Catherine McCune(1906~1995), 둘째가 맥쿤(GMM, 1908~1948), 셋째가 Elizabeth Margaret(Peggy, 1911~1995)이며 막내가 바로 맥쿤(SM, 1913~1993)이다.¹²⁾

그의 경력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파크대학 설립자의 딸과 결혼했고 파크대학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파크대학의 특징은 돈 없는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조부(自助部)를 두었고 미국 중부에 있는 작은 대학들처럼 신학교 예비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에 윤산은이 책임지게 될 선천의 신성중학교와 평양 숭실중학교·대학이 바로 파크대학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¹³⁾ 윤산은의 다음의 언급에서 그의 노동과 학업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다.

파크대학에서처럼, 많은 소년들(신성중학교 : 필자)은 너무 어렵지 않은

10) 윤산은 가족의 문서들(GSM, GMM, SM)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가 Collection 289-290으로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1976년 맥쿤(GMM)의 부인인 에블린(Evelyn McCune)이 남편의 문서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수집되었다.

11)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Collection 290의 목록의 해설 참조.

12) 이들의 생몰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첫째 딸인 Anna Catherine McCune의 자제인 킹던 형제(Robert Kingdon과 Arthur Kingdon)와의 대화와 이메일(각각 미국시간으로 2004년 12월 4일, 2005년 2월 26일)을 통해서이다. 그들을 연결해준 하와이대학의 슈츠(Edward J. Schultz)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13) 이 학교는 중부 미주리(Missouri)주의 파크빌(Parkville)에 소재하고 있었고 노동이 필수과목이었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CN : EastBridge, 2003), p. 107.

일을 바란다.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위해 整地 작업보다 사무직이 더 선호된다. 그러나 일 특히 정직한 일이, 미국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잡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한국학생들로 하여금 예수와 그의 교회를 위해 일을 하고 고난받도록 적합하게 만드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¹⁴⁾

그리고 후일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경시하는 한국인들의 유교적 습성을 고치는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다. 노동의 부재는 경솔하며 판단의 부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명백히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가치에 도움이 되면서 한국인들의 악한 습성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악한 습성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명예심(honor)과 진취적인 힘, 판단력, 예지력의 일반적인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솔함이다.¹⁵⁾

그는 풍부한 교육배경을 가지고 부인(Helen McAfee McCune)과 함께 북장로교 교육선교사로 1905년 9월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¹⁶⁾ 한국에 도착한 직후 그는 아내와 함께 평양에서 4년간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이 기간에 익힌 한국어는 그가 능숙하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¹⁷⁾ 평양에서 그가 주로 담당한 일은 교회와 숭실학교¹⁸⁾에서 가

14) GSM, "Honest Labor Makes the man," *Korea Mission Field* (이하 *KMF*) Vol. 7. 1911년 9월, pp. 269~270.

15) GSM, "Hand Training Necessary as well as that of Head and Heart," *KMF*, Vol. 14. 1918년 1월, p. 7.

16) 그가 탄 배는 1905년 9월 9일 인천에 도착하기 전 좌초되어 윤산온 가족은 작은 섬에서 밤을 보낸 후 다른 배로 들어왔다. Helen McAfee McCune, "The Wreck of the Anto Maru," *KMF*, Vol. 2. 1905년 11월, pp. 1~4.

17) 윤산온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갈 수 있게 된 이동진 전 하와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윤산온 박사를 능란한 한국말로 설교와 농담을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미국인 선교사로 평가했다.(이동진, 앞의 글, p. 476) 윤산온은 신사참배문제로 미국에 돌아간 후 한국인 모임에서 한국어로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Dr. G. S. McCune is Dinner Guest," *The Korean Student Bulletin*(선인, 2000) December-January, 1936~1937. No. 2., p. 346.

18) 숭실대학은 1905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어 1908년 대한제국 학부에서 대학부로 인가를 받았지만 1911년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의해 전문학교로 강등되었다.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함께 대학부 임시 이사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인 배위량(William

르치면서 배위량(William M. Baird) 선교사의 숭실학교와 교회운영을 돕는 것이었다. 특히 평양지역 교회 소속의 학교들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학생들을 배치하는 일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1908년 가을에 6백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로 찾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학교를 재조정했는데 윤산온은 이 일을 한국민족의 희망(the hope of the nation)으로 평가했다. 특히 선교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평양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위해 헌금하는 모습은 그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¹⁹⁾

평양에서 일할 때 윤산온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1907년 평양지역의 대부흥운동이었다. 그는 평양 중앙교회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으며 그 함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²⁰⁾ 그는 1월 첫 두 주 동안 지속된 이 운동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신도들의 회개운동으로 이해했다. 성령운동의 다른 소득은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들쭉 짝을 지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며 전도활동을 하는 것과 접촉한 사람들이 부흥운동의 현장에 오는 것이었다.²¹⁾ 윤선교사가 이 사건 후 평양 주변 지역인 곡산과 중화군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대부흥운동이 그곳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고 3일 동안 59명의 학습자들(catechumen)을 만나 4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울러 평양지역의 동서남북 각 지역교회와 중앙교회의 자리가 넘쳐서 교인들을 적절히 분배해야만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확장에 장로교와 감리교는 잘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²²⁾ 선교사들은 대부흥운동의 여파를 이어가기 위해 그 해 평양신학교 개학 주간에 한국인 장래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많은 한국인들이 회개하고 간증을 했다.²³⁾

M. Baird, 마포삼열(Samuel A. Moffet), 방위량(William N. Blair) 등이 이사진을 구성했다. 숭실대학의 탄생에 대해서는 《숭실대학교 100년사》1(평양 숭실편), 서울 : 숭실대학교, 1997, pp. 129-140.

19) GSM, "Reorganization of the City School Work of Pyeng Yang," *KMF*, Vol. 4. 1908년 8월, p. 120.

20) GSM,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KMF*, Vol. 3. 1907년 1월, pp. 1-2. 한국 기독교사자들에게 이 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정신이 정착되고 기독교의 윤리관이 확립된 계기로 평가되면서도 한국 기독교인을 비정치화 내지 몰역사적 자세를 갖도록 만든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의 《한국기독교의 역사 1》, pp. 273-276.

21) GSM, "The Wonder of It," *KMF*, Vol. 3, 1907년 3월, pp. 44-45.

22) GSM, "Ever Extending Blessings," *KMF*, Vol. 3, 1907년 4월, pp. 54-55.

윤산온도 개인의 구원과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당시 전형적인 평양지역의 보수적 신앙의 선교사로 볼 수 있다.

윤산온은 1909년 평안북도 선천의 신성(神聖)중학²⁴⁾의 교장직과 주변 의 초등학교를 감독하는 일을 부여받았고 그의 아내도 보성(保聖)여자학교의 수장을 맡았다. 신성중학 학생 재학기간은 3~4년으로 윤산온의 부임 후 학생들이 늘어서 1911년 9월 학기에 153명이 학교를 다닐 정도로 커졌다.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교 교사로 진출하거나 숭실대학 등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²⁵⁾ 이미 언급한 대로 학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하며 농장과 공장부(Industrial Department) 등 자조(自助)기관에서 일을 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학교를 운영하는 효과적인 것이었다.²⁶⁾ 윤산온은 학생들의 기숙사 식단을 짜고 노동을 조직화했으며 자조부의 일과 기숙사 생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했다.²⁷⁾ 신성학교와 숭실

23) GSM, "Opening Day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KMF*, Vol. 3, 1907년 6월, pp. 89~90.

24) 신성중학교는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 사이에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The Hugh O'Neil Jr. Academy for Boys로 불렸다. 1906년 평안북도 선천에 한국인 애국자인 양전백(梁甸伯), 김석창(金錫昌) 목사와 선교사 위대모(魏大模, Norman C. Whittemore)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학교로 미국식 학제와 교육을 따랐다.(신성학교동창회, 앞의 책, pp. 53~58) 그러나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따르지 않아서 고등보통학교가 되지 못하고 사립각종학교 중 하나로 신성학교로 불려졌다.(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 출판부, 1971, pp. 112~119, 166~175) 그러나 1942년 9월에 신성중학교가 되었다.(신성학교동창회, 앞의 책, pp. 300~301)

25) GSM, "Yes! Just Boys," *KMF*, Vol. 7. 1911년 9월, pp. 249~251. 졸업생들 중 일부는 교사로 있으면서 교회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

26) 이 활동은 책만들기, 농업, 수위, 목수일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1910년 기준으로 자조부에 57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었고 이들이 500달러 정도의 일을 했고 학비로 125달러를 학교에서 받았다고 했다. 신성중학 자조부 일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GSM, "Honest Labor Makes the Man," *KMF*, Vol. 7, 1911년 9월, p. 270. 자조부의 계획들은 여자들을 위한 초등학교 고향년에서도 시도되었다. Mrs. George. S. McCune, "Work in Syen Chun for Girls and Young Women," *KMF*, Vol. 7. 1911년 11월, pp. 313~314. 이러한 자조사업은 숭실전문학교에서 인쇄소, 기계창, 그리고 나중에 농장으로 확대되었다. 자조부의 활동에 참여한 숭실학교 인사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적 삶을 학습했다고 했다.(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100년사》 1, pp. 251~257)

27) GSM, 위의 글. pp. 9~10 ; GSM, "The Student Must Eat: the Where and

학교의 자조부의 성격은 바로 베버가 말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²⁸⁾

그는 신성학교 교장 재직시절 지역교회의 부흥운동에도 참여했다. 1910년 당시 선천과 주변 지역의 교회가 100개 이상 설립되었고 평양부흥운동과 비슷한 방법이 사용되었다.²⁹⁾ 그가 교회를 맡았다는 것은 선천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의 감독과 조정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에서 임명한 학교 이사진들에 의해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건물 확충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³⁰⁾ 신성중학교 출신으로 1910년에 2명, 1911년에는 4명의 조사(助手)를 두고 지역을 순회하는 활동을 하면서 신성중학 출신을 단기간 다른 지역에 선교를 위해 파견하기도 했다.³¹⁾ 한편 윤산온의 부인은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여성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운영, 북장로교 연차대회에서 여성교육과 전도자 양성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³²⁾

How of it or the Managing of the Boarding Department,” *KMF*, Vol. 14, 1918년 10월, pp. 217~219.

- 28) 베버는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갖춘 착실한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원래 의도는 개신교의 윤리가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발생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 가운데 하나 혹은 촉진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건주의의 덕목인 충실, 정직, 노동 등의 덕목이 평안도 지역의 자본주의와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막스 베버 /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88, p. 14)
- 29) GSM, “The Campaigns in Syen Chen,” *KMF*, Vol. 7, 1911년 1월, pp. 21~22.
- 30) GSM, “The Hopefuls,” *KMF*, Vol. 7, 1911년 9월호, pp. 247~248. *KMF* 1911년 9월호는 선천 특별호로 선천지역의 소식이 압도적인데 윤산온과 부인의 기고가 대부분이다. 그의 새로 주일학교 어린이들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GSM, “Sunday Morning in Syen Chyun,” *KMF*, Vol. 7, 1911년 9월, p. 259 ; “Coi Chagun Nom-Little Brat Choi,” *KMF*, Vol. 7, 1911년 12월, pp. 355~356.
- 31) GSM, “Students Missionary Organization,” *KMF*, Vol. 7, 1911년 2월, pp. 53~54 ; “Yes! Just Boys,” *KMF*, Vol. 7, 1911년 9월, pp. 249~251. 신성중학교 학생이 안동지역에 파송되었다.
- 32) Mrs. George S. McCune, “The Syen Chyun Women’s Bible Study Class,” *KMF*, Vol. 8, 1912년 8월, pp. 249~250 ; “Women’s Meeting-Presbyterian Conference,” *KMF*, Vol. 13, 1917년 9월, pp. 230~233.

선천지역은 이미 1901년에 선교거점(mission station)이 되었고 16년 안에 187개의 외부의 작은 거점과 11,681명의 접촉자들, 5,416명의 학습교인들, 그리고 세례교인 28,350명으로 평양을 뒤이어 평안도지역, 특히 평북지역 기독교의 핵심지역이었다.³³⁾ 선천지역의 주일학교의 광경을 묘사한 글은 각 교회는 주일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신성중학교의 교사(校舍)를 빌려 사용했고 수백 명의 남자들과 천 명 이상의 여자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³⁴⁾ 1910년대 중반 선천 인구가 6,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2,601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천지역의 교세를 짐작할 수 있다.³⁵⁾

선천지역은 일제에 의하여 요시찰 대상이었다. 당시 일제는 평양 일대, 황해도 안악 일대와 별도로 정주·선천·신의주 등 평북 일대를 총독부 경무과의 요시찰 대상 지역으로 관리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특징은 하나 같이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윤산온의 신성중학은 당시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안악의 양산학교와 함께 식민 당국의 사찰대상으로 그 극적 사건이 바로 안악사건 혹은 105인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학교들 가운데 윤산온의 신성중학은 당시 선교사들이 관여한 소수의 경우로, 105인 사건이 외국에 기독교 탄압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윤산온은 신성중학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예화를 통해 정의롭고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약한 사람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설교를 했다.³⁶⁾ 다윗과 골리앗은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일본 당국에 의해 윤산온이 한국인의 독립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33)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p. 510.

34) GSM, "Sunday Morning in Syen Chyun," *KMF*, Vol. 7, 1911년 9월, pp. 258-261.

35) Mrs. George S. McCune, "Sunday Schools in Syen Chun," *KMF*, Vol. 11, 1915년 10월, p. 291.

36) Arthur J. Brown, *op. cit.* p. 569.

1915년 선교사 사회에서 일대 위기로 받아들여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규칙의 개정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종교교육을 정규교육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이었다.³⁷⁾ 그는 교육이 단순히 시민의 지성만 강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므로 당연히 종교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타협책으로 정규교육 외에 다른 시간에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는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후학들에게도 가르쳤다.³⁸⁾

3. 3·1운동 전후와 2차 내한 후의 활동

신성학교 교장이었던 윤산온은 3·1운동 당시에 직접 시위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시위참가자들을 집에 숨겨두었는데 일제의 가택수색을 완강히 거부해서 한국인들을 도왔다.³⁹⁾ 게다가 1920년 9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원단이 평북 선천에 들렀을 때 한국인들의 진정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의원단에게 전달했다. 일본측은 같은 해 9월 1일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신성학교 학생인 박치의(朴治毅)를 구속하여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전 윤산온은 영결기도(永訣祈禱)를 해주었다. 일본 당국은 박치의가 신성학교 출신이라서 윤산온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⁴⁰⁾ 결국 윤산온은 3·1운동과 뒤이은 일련의 반일활동으로

37)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과 사립학교의 관계는 손인수, 앞의 책, pp. 112~133 ; Donald N. Clark, *Op. cit.*, pp. 44~45.

38) GSM, "The Missionary on His Job," *KMF*, Vol. 13, 1917년 10월, pp. 256~258. 그의 교사 직업에 대한 애착은 그의 애제자였던 고병간(송실대 학장 역임)의 회고에도 등장한다. 신성중학 재학시 윤산온은 고병간에게 장차 무슨 일을 하기를 희망하느냐고 물었는데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이 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고병서, "청림결백의 교육가 高秉幹," 《인물로 본 송실 100년》 2, 송실대 학교, 1997)

39) Donald N. Clark, *op. cit.*, p. 50.

40) 신성학교 동창회, 앞의 책, pp. 62~63.

결국 1921년 초 식민지 조선을 떠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큰 아들 맥쿤(GMM)의 병⁴¹⁾을 치료하기 위한 출국이었지만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게다가 그가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브라이언(Bryan)의 생질이라는 사실이 혹시라도 그가 미국에 돌아간 후 반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당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⁴²⁾ 그는 미국에서 1928년까지 휴론대학(Huron College)의 총장으로 근무했다. 1928년에 다시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 때는 사이토 총독이 다시 한국에 귀임했던 때이고 윤산온을 선대했다고 한다.⁴³⁾ 그리하여 그는 송실 중학교와 전문학교(Christian Union College)의 교장으로 오게 되었다.

그가 송실대학을 맡고 있을 때는 송실대학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는 시기였다. 이미 1925년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은 송실전문학교는 이후 대강당과 기숙사, 본관의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30년 10월 10일 개교기념일에 맞춘 대강당은 당시 총공사비 54,400원을 들여서 완성했는데 건평 303평, 연평 756평, 그리고 수용인원만도 6,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강당이었다.⁴⁴⁾ 윤산온은 송실전문학교에서도 자조부를 통한 학생들의 노동과 학비마련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러한 자조부와 같은 부서는 후에 송실학교 출신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증언하게 했다. 자조부에서 운영하던 인쇄소는 1928년에 송실전문학교 출판부로 발전되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제자였던 백낙준 박사의 예일대학 박사논문(*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이었다.⁴⁵⁾

윤산온이 송실전문학교에 부임한 후 한반도는 대공황의 여파로 농촌의 빈곤이 심했다. 그리하여 송실전문학교는 농업과를 확대하기로 하고

41) 큰 아들 맥쿤은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결국 1948년 만 40을 갓 넘기고 사망했다. 각주 2) 참조.

42) “米牧師 尹氏の 歸國과 風說,” <동아일보> 1921년 2월 22일, p. 3.

43)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Collection 290의 해설 참조.

44) 대강당은 전 조선주일학교와 같은 기독교계의 전국적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다. 본관은 1932년 10월 10일 증축되었다.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100년사》 1, pp. 339-341.

45)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출판물은 이훈구의 《조선농업론》(송실전문학교, 1935)이다.

1931년 이훈구⁴⁶⁾를 농과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농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28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농민생활>을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1929년 5월부터 발간하였다. 그런데 이 잡지를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숭실전문학교 사람들이었고 특히 윤산온은 이 잡지의 발행인으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당시 이 잡지는 동일계통의 잡지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한다.⁴⁷⁾ 숭실전문학교는 고등농사학원과 농촌야학을 부설해서 전국의 농민대표자를 교육시키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1920년대 미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신학논쟁 전의 넓은 의미의 ‘복음적’⁴⁸⁾ 혹은 ‘선교적’ 전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평안도 지역의 다른 선교사들 특히 평양신학교의 교수진보다 사회문제에 대해 열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윤산온이 신성중학(1909~1921)과 숭실중학·대학(1928~1936)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한 일은 바로 우수한 학생을 택해서 미국대학에 보내는 것이었다. 신성학교의 교장으로 막 부임했을 때 그를 찾아온 고

46) 이훈구(1896~1961)는 위스콘신대학에서 한국농업사로 박사학위를 했고 1936년 윤산온이 신사참배문제로 한국을 떠난 후 숭실전문학교의 부총장이 되었다. 학교 폐교 후 1938년에는 조선일보 주필과 부사장이 되었다. 해방 후 남한의 농지개혁에 힘을 썼고 제헌국회의원, 초대 참의원 의원, 성균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의 이훈구 항목과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100년사》 1, pp. 295~298, 494-497 등을 참조)

47) 이 잡지의 성격과 장로교 전반의 농촌운동과의 관련은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pp. 74~75, 127~129 ; 숭실대학교, 앞의 책, pp. 343~345 참조.

48) ‘복음적’(evangelical)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의미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류대영, “초기 한국교회에서 ‘evangelical’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의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49) 평양신학교 교수들이 당시 한국사회문제 특히 농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박형룡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평양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 논쟁에서 엄격한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윤산온이 신성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박형룡은 학교를 졸업했고 후일 신사참배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산온은 박형룡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한 것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장동민, 《박형룡의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3장 참조)

아였던 백낙준(1895~1985)이라는 학생을 집사(執事, houseboy)로 두고 학비 대신 일을 시켰다. 백낙준은 중학을 마치고 맥쿤의 권고로 중국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금릉대학(Anglo-Chinese College)에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면서 유학을 했고 1916년부터 파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파크대학은 이미 언급한 대로 윤산온의 장인이 세운 학교로 백낙준은 여기서 자신의 세계관과 학문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또 많은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1922년까지 6년 동안 파크대학에서 학부를 한 후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와 예일대학의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했다.⁵⁰⁾ 이러한 과정에서 윤산온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백낙준 박사의 영어이름이 조지(George)인 것은 바로 윤산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윤산온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산온 가족과 백낙준 박사의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⁵¹⁾ 그리고 윤산온은 숭실대학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미국대학에 소개해서 건너가게 했고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⁵²⁾

윤산온은 숭실전문학교에서 실천윤리학을 강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전 신성중학교에서 가르친 기독교인의 노동윤리 덕목의 범주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윤산온의 한국에서의 활동의 정점은 바로 1931년부터 35년까지였을 것이다. 1930년 장로교 총회는 교회진흥방침 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촉하여 교세 확장에 노력했다. 특히 관서지방의 부흥은 역시 전체 한국기독교의 핵심 부분이었다. 관

50)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희전문대학의 교수들을 검거할 때 마침 백낙준은 세계 장로교 회의 참석차 미국에 있었는데 파크대학은 그에게 성경과 국제관계를 가르치도록 1년 동안 배려를 해주었다.(Donald N. Clark, *op. cit.*, p. 204. 백낙준 박사에 대해서는 같은책, pp. 106~109. 참조)

51) 백낙준 박사는 2세대 맥쿤 집안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백박사가 미국에 올 때 맥쿤 집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와이대학 한국 연구소에서 그의 외손자(Anna Catherine McCune의 아들)인 Arthur Kingdon 목사와 2005년 1월 27일 면담.

52) 이동진의 증언에 따르면 윤교장은 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휴론대학(Huron College)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한국학생들이 그 학교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여비와 장학금을 제공했고 다른 학교, 예를 들면 신학교, 음악학교 등에도 유학을 추천했다.(이동진, 앞의 글) 또한 평양 신학교 교수가 된 박형룡 박사를 미국의 신학자 메이첸에게 소개해주어서 생활비 도움을 받게 했다.(장동민, 앞의 책, p. 85)

서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1931년부터 송실학교를 중심으로 관서 남녀 기독교청년수양회를 개최했는데 1934년 한국 선교 50주년 회년 기념회를 제외하고 1936년경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송실전문학교 대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진 각종 수양회에 연사로 참석했다.⁵³⁾ 그는 1934년 서울 경신학교(John D. Wells School)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된 한국선교 50주년 기념 선교사대회에 마펫, 클라크 선교사 등 북장로교 평양 지역 고참 선교사와 함께 참가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북 장로교 선교회에 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⁵⁴⁾

윤산온이 학장으로 있던 1930~1935년은 송실의 전도대와 악단이 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각지에 전도활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신사참배문제가 제기되는 1935년 가을 전 여름은 윤산온의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해 여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기 아동사경회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거행된 제4회 관서 남녀기독교청년 수양회를 주관했다. 그리고 전도대의 활동은 전국 13개 도와 만주지역에까지 미쳤는데 참여 학생은 58명이었고 각 지역의 성경학교는 60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참여자는 7,235명이라고 했다. 여름에 접촉한 사람들이 대략 25,000명에 달할 정도로 식민지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의 전망은 매우 밝았다.⁵⁵⁾

53) 수양회에서 다룬 내용은 신앙 문제, 청년운동, 농촌문제, 여성문제 등으로 그 중 농촌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졌지만 윤산온은 대개 목사로서 신앙의 문제를 강연했다. 이 수양회에는 당시 송실전문학교의 교수들이나 저명인사, 예를 들면 이훈구·박형룡·조만식·정인파·채필근 등이 참여했다. 관서 남녀기독교청년수양회에 대해서는 송실대학교, 앞의 책, pp. 351~366.

54) George S. McCune, "Fifty Years of Promotion by the Home Board and the Home Church," *The Fif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Seoul: YMCA Press, 1934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자료총서 27로 영인).

55) GSM, "Union Christian College Preaching Bands," *KMF*, Vol. 31, 1935년 12월, pp. 259~260. 이 글이 윤산온이 *KMF*에 기고한 마지막 글이다.

4. 1930년대 신사참배문제와 귀국 후의 활동

일본 사회는 만주사변 후 점점 더 군국주의화되었는데 일본 당국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천황제의 강화를 통해 국가를 통제해나갔다. 1934년 6월 문부대신이 문부성내에 사상국을 설치하고 1935년 5월에는 도시샤 가미타나[同志社神棚] 사건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나갔다. 특히 천황기관제 사건은 일본의 지성계가 군국주의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35년 2월 28일 일본 귀족원 본회의에서 남작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가 귀족원 의원이었던 헌법학자 미노베 다스키치[美濃部達吉]의 저서 가운데 《헌법촬요》(憲法撮要)와 《축조헌법정의》(逐條憲法精義)의 일부를 문제 삼아 그의 주장은 “통치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천황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공격했다. 이후 학계는 이른바 천황주권설론자들이 주도하며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성명이 발표되는 과정을 겪었다.⁵⁶⁾ 이러한 천황제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산온이 평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발단은 1935년 11월 14일 평남도청에서 개최된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도지사가 회의 개최 전 평양신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때였다. 이 때 윤산온과 몇몇 기독교인들이 참배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윤산온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미 신사참배문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⁵⁷⁾ 여기서는 윤산온의 주장과 당시 미국 정부 당국의 평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평안남도 지사는 금후 참배를 거부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

56) 천황기관제 사건에 대해서는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24~131.

57)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의 논문선집 참조.(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특히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참조.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당시의 <동아일보>의 기사가 유용하다.

라고 주장했고 12월 20일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윤산온은 처음에는 신사참배 이외에 다른 애국적인 활동에는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타협을 모색하기도 했지만⁵⁸⁾ 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결국 일본의 강한 압력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폐교가 될 것이고 또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타협을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보고했다.⁵⁹⁾ 이후 그는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른 기독교인들과 의논한 결과 고수하기로 하고 도지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신사참배 반대의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신도의식이 명백한 종교적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많은 이들이 신사에서 영령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셋째는 기독교인들에게 조상숭배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⁶⁰⁾ 이러한 주장은 총독부 측의 주장 즉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주장과 충돌하는 것이었다.⁶¹⁾ 결국 그는 1936년 1월 18일에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교장에서 해임되었다.

선교사들 사이에도 윤산온의 논리인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지적하는 주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인 원한경(H. H. Underwood)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라는 논리로 이를 수긍하는 주장이 부딪혔다.⁶²⁾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총독부가 만주와 중국대륙에서 중국과 가속화되는 갈등을 식민지와 일본 국내의 통합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기본적 배경이었다. 여기에 전통적인 평안도 지역과 기호지방의 선교사들 사이의 신학과 사회인식, 그리고 총독부와의 관계 차이가 덧붙여져 불거져 나온 것이다. 신사참배문제로 폐

58) “평안남도 지사에게 보낸 맥쿤의 편지,” 1935년 12월 19일, 《신사자료 II》 p. 43.

59) “맥아피(Cleland B. McAfee)에게 보낸 맥쿤의 편지,” 1935년 12월 20일, 《신사자료 II》 pp. 45-49.

60) “평안남도 지사에게 보낸 맥쿤의 편지,” 1936년 1월 18일, 《신사자료 II》, pp. 45-49. 이 편지는 《신사자료 I》, pp. 156~157과 210~211 등에도 실려 있다.

61) 일본측 주장의 핵심은 앞의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p. 290 참조.

62) 위의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pp. 285~301.

교의 위협에 처한 학교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한국인들과 반대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선교사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게 되었다.⁶³⁾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갈등⁶⁴⁾은 한국인들을 선교사들과 대립적인 위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내에서도 신사참배문제와 이후 진행된 전시체제하의 조선인 엘리트들의 친일 활동에 대한 평가문제로 해방 후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평양 지역의 복장로교 선교사들은 다른 교파와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과 갈등을 겪었지만 특히 일본 지역 미국 선교사들과 서울 주재 미국영사관 직원들과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36년 초 평양 지역의 신사참배 파동을 겪고 신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영사 에드슨(Andrew W. Edson)은 일본에 가서 라이샤워(Reischauer) 선교사⁶⁵⁾를 포함한 대표적인 주일 미국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들은 식민지 조선의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종교적 중요성”(undue religious significance)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선교사들은,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은 장로교 해외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근본주의파이며 이들은 일본만 아니라 뉴욕 선교본부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슨 영사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교육선교사들은 각급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당국은 대표만 신사에 참배하고 모든 학생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허락할 만큼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선교사들이 잘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⁶⁶⁾ 미국영사관도 현실적으로 종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좋지

63) 신사참배를 둘러싼 학교 내분에 대해서는 송실학교의 경우는 송실대학교, 앞의 책, pp. 486-526.

64)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미복장로교 평양지역 선교사회의 학교 철폐 결정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다. Donald N. Clark, *op. cit.* pp. 214-216.

65) 전후 하버드대학의 일본사 교수가 된 Edwin O. Reischauer의 부친이다.

66) 재일본 미국선교사들의 반응은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 Policy,” 서울의 미국영사 에드슨이 일본 동경의 미대사 그루(Joseph C. Grew)에게 보낸 비밀문건, 1936년 7월 6일(395.1163/38)(이하는 문서제목, 날짜와 괄호 속에 문서 번호로 서술). 《신사자료 I》, pp. 232-241 참조. 여기에 동의하는 극동국의 입장은 극동국 문서 1936년 8월 3일(395.1163/38), 같은 책, pp. 230-231. 일본선교사들이 미국의 전후 대일 계획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않다고 판단하고 단지 미국선교회의 재산 처분시 일본측의 반대가 있거나 총독부에 의한 몰수가 있다면 자신들이 개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⁶⁷⁾ 한편 미국 국무성 극동국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 식민지 조선의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문제와 관련해서 종교적 중요성을 과장한다고 판단했으므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⁶⁸⁾ 이러한 차이점들은 전후 대일정책 가운데 신사문제나 천황제 문제에 대한 일본선교사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윤산온은 1905년부터 1936년 초까지 30년 이상, 실제로는 22년간이나 일한 한국 땅을 1936년 3월 21일 수많은 평양시민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떠났다.⁶⁹⁾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당연히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가 일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⁷⁰⁾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그는 하와이에서 4주간 머물렀다. 윤산온은 하와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연설을 했고 그 연설문을 후에 미국 상하원에 보냈다. “미국의 친구들”(Friends in America)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윤산온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일본헌법 28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1858년 미일조약과 다른 국제조약에서 보장하는 해당 국가의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도는 태양신(天照大神)과 천황의 조상들이 신으로 모셔지고, 명령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로 국가의례가 아닌 ‘종교’였다.⁷¹⁾

왜 일본과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졌는가는 교파적으로나 인맥적으로 또 현지의 사정에 대한 평가 등의 면에서 자세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67)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children at Shinto Exercises,” 서울의 미영사 랭던(William R. Langdon)이 일본대사 그루(Joseph C. Grew)에게 보낸 문서, 1936년 2월 1일(395.1163/25 중), 《신사자료 I》, pp. 147~155.

68) 1936년 2월 12일 자 국무부 극동국 메모 395.1163/24, 1936년 8월 14일(395.1163/39), 《신사자료 I》, p. 137, pp. 252~253. 미국무성 극동국의 메모는, 북장교도 선교사들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 주재 영사인 랭던의 입장을 지지한다.

69) 이동진의 회고에 7천 내지 8천 명으로 나와 있다. 이동진, 앞의 글.

70) 국무성에서도 그가 미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윤산온과 Dooman의 대화, 1937년 1월 21일(396.1163/45), 《신사자료 I》, pp. 292~296.

71) Headquarters Hawaiian Department에서 Assistant Chief of Staff, G-2, War

윤산온은 미국에 돌아온 1년 정도 후에 국무성 극동국에 출두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부가 주미 일본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극동국은 종교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윤산온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했다.⁷²⁾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시카고 근처의 선교사 훈련센터인 무디 성서학교(The Chicago Moody Bible Institute)에서 교장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 학교는 근본주의에 가까울 만큼 성서의 무오와 진도를 강조하는 학교였다.⁷³⁾ 윤산온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가르치며 한인 유학생들의 간행물인 *The Korean Student Bulletin*의 자문위원(Board of Advisors)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는 한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유창한 한국어로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역설함과 동시에 많은 한인유학생들에게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⁷⁴⁾

한편 그는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태평양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인 1941년 3월에 그의 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했다.⁷⁵⁾ 그러나 이 시리즈는 그가 일찍 사망했으므로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계속 발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한국에 대한 많은 글을 남기면서 미국의 대한인식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윤산온은 1941년 12월 7일(미국시간) 시카고 장로교병원에서 운명하였다. 그날은 바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이제 그의 아들들이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

Department에 보낸 문서. 1936년 5월 7일(395. 1163/37), 《신사자료 I》, pp. 244-247.

72)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윤산온과 Dooman의 대화, 1937년 1월 21일(396.1163/45), 《신사자료 I》, p. 294.

73)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맥쿤 문서 Collection 290. 안내문.

74) 예를 들면 1936년 12월 20일 뉴욕 한인교회에서 45명의 한인과 만나서 신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교육문제를 설명했다. "Dr. G. S. McCune is Dinner Guest," *The Korean Student Bulletin* (선인, 2000). December-January, 1936-1937. No. 2. p. 346. 그에 대한 소개는 같은 책, pp. 348-349의 "Dr. G. S. McCune to Advise Korean Students in America"를 참조.

75) 이 연구 시리즈는 Research Monographs on Korea, series A-G로 41년 3월부터 48년 8월까지 발간이 되었는데 내용과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시간이 된 것이다.⁷⁶⁾

5. 맺음말

이상에서 윤산온에 대해 그의 생애, 교육배경, 활동 등을 한국에 체류한 시간대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그는 교육선교사로서 자립심이 강한 기독교인을 키워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으며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늘 한국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로 윤산온으로 하여금 ‘105인 사건’이나 3·1운동 등에서 보듯이 일제 당국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시켰던 것이다. 윤산온은 한국에서 각급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고취시키면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의 종교적 순수성은 바로 신사참배 반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항상 식민지 당국과 대립적인 위치에만 있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기독교에 대한 그의 인식이 군국주의화한 일본과 대립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종교의 자유 대 종교화된 국가의식의 갈등 속에서 그는 한국에서 추방되면서 군국주의화하는 일본의 첫 외국인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미국에 돌아온 후 한국에 돌아가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의 사례는 평안도 지역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창(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 출신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했으며 국가에 대한 종교의 간섭 혹은 전체주의에 대해 저항했다. 특히 해방 후 이 지역 엘리트들이 비록 친미적이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 식의 전체주의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이다.⁷⁷⁾ 윤산온은 서북 지역에서 식민지 시기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선교사로서 신

76) 선교사들 혹은 그들의 2~3세, 그리고 식민지 시기 서울의 미영사관 직원들이 태평양전쟁과 미군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한미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제이며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분야이다.

77) 평안도 출신 엘리트층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연구는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 131~146.

성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 출신들로 대표되는 평안도 지역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서북 지역 엘리트들의 해방 이전 특히 이후의 친미적인 태도라든가 일제에 대한 종교적인 갈등 등을 이해하는 데 윤산온의 사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윤산온에 대한 이 연구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구는 윤산온이 신성이나 숭실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이나 그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깊이가 있게 다루지 못했다. 이 문제는 추후 하와이대학의 한국학연구소가 소장한 방대한 맥쿰 가족의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자녀 세대가 한국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윤산온의 사회문제에 대한 넓은 시각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자녀 중 매우 뛰어난 한국학 학자인 맥쿰(GMM)은 당시 미국에서 매우 드물게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의 전통 역사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일제시대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측면에서 일제의 지배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해했다. 아울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편견적이고 인위적인 분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⁷⁸⁾ 그러한 측면들은 결국 아버지의 영향을 떼어놓고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윤산온과 그의 자녀 세대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깊이와 애정은 독특한 면이 있다.

참고자료

The Korea Mission Field.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Clark, Donald N.,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T: EastBridge, 2003.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78)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p. 22~37, 남북의 인위적인 분단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 52~60.

- 류대영, “초기 한국교회에서 ‘evangelical’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의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100년사》 1(평양숭실편), 숭실대학교, 1997.
- , 《인물로 본 숭실 100년》 1, 2집, 숭실대학교, 1992·1997
- 신성학교동창회, 《신성학교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 : 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I :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기독교문사, 1989·1990.

(투고·접수일 : 2005년 8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9월 1일)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05년에 내한해서 1936년 신사참배문제로 미국으로 출국해야 했던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 선교사였던 맥쿤(George S. McCune, 尹山濶) 선교사를 다루었다. 윤산온은 파크대학의 설립자의 딸과 결혼했고 그 자신이 파크대학 출신이자 교수로 일을 했다. 그는 한국에 교육선교사로 와서 파크대학의 자조부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를 평안도 지역의 교육기관에 접목시켰다. 처음에는 선천의 신성학교에 후에는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실전문학교에 이것을 소개했다. 이러한 일과 학업의 병행은 당시의 평안도의 지역적 특성, 즉 자주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중산층문화에 하나의 촉매작용을 해서 후일 이 지역에서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의 신학적 입장은 보수적이었지만 그가 1912년에 있었던 테라우치 암살미수사건 혹은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서 일본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데서 보듯이 그는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에 일정한 공감을 가졌다. 물론 그것이 그가 늘 반일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활동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확장과 기독교 교육에 그의 삶은 집중되었지만 30년대 중반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일제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식민지 당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른바 1935년 말에서 1938년까지 진행된 신사참배문제였다. 윤산온은 그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미국영사관과 일본 지역의 선교사들은 평양 지역의 북장로교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추방은 바로 미국과 일본 당국의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윤산온(George S. McCune), 평안도, 선교사, 파크대학, 신성학교, 송실전문학교, 신사참배

Abstractr

George S. McCune's Missionary Activities and Shrine Worship Issu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 Jong-Chol

This article deals with a prominent missionary in Pyeng-an province, George S. McCune who came to Korea in 1905 and departed in 1936. After graduating from Park College, McCune worked as a faculty member and was married to a daughter of the Park College founder. As an education missionary in Korea, he tried to connect the work and study program to the education institutions in Northwest region in Korea. At first Sinsŏng middle school at Sŏnchŏn and later Soong-sil middle school/ college at Pyengyang, he introduced the departments of industry and agriculture to students. This work and study program contributed to the regional atmospheres from which many middle class people rose.

Though his theological position was conservative and even “fundamental” especially in the Bible issues, it was estimated that he was participating and had sympathy with Korean Independence cause at the time. One example was his presumable involvement in the event of “Terauchi assassination plot” in 1912. It does not mean that he was always anti-Japanese. His main enthusiasm was always on the evangelism and education. But regardless of his will, his works was fundamentally contradictory to the Japanese authorities because the mid-1930s saw the totalitarianism over the thoughts and religion in the Korean colony. That was the Sintō shrine issue which started fully in late 1935 until 1938. McCune was at the center of this issue, but the American consulate in Seoul and embassy in Tokyo did not give consent to his and Northern Presbyterian colleagues' position. Even American missionary circle in Japan did not side with him. Although he did not get support from his government, his deportation signaled the chasm in the margin of the Japanese empire in terms of the U.S. and Japanese relations.

Key-words : George S. McCune, Pyeng-an Province, Missionary, Park College, Sinsŏng School, Soong-sil College, Shinō Shrine Worship